

# 숲 파괴의 재앙 황사



## 전국적으로 황사발생, 원인은 숲파괴로 인한 사막화진행

지난달 21일에 전국적으로 최악인 황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많은 시민들은 외출을 꺼려 도심은 휴일처럼 한산하였고 각 병원들은 호흡기, 안과 환자로 붐볐다. 많은 시민들이 야외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내년에는 올해의 황사 보다도 더 심할 것이며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황사의 진원지인 중국 북부지역에 높은 기온과 가뭄이 계속되 예전보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사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중국 내륙 지역과 내몽골 지역의 숲파괴로 인하여 사막화가 진행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황사는 인체에 극히 해로운 결과 야기

황사는 한국과 중국의 환경문제중 가장 민감한 분야이며 후두염 천식 알레르기 성 비염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기관지 관련 폐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눈병이나 피부염 및 피부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시정악화로 인한 항공기 결항, 문화재 파괴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 각종 오염물질과 결합돼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기도 한다. 그리고 황사먼지는 햇볕을 가려 태양복사의 산란과 흡수를 증대 시키고 하늘을 황갈색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햇볕을 차단하기도 하여 심한 경우에는 시정거리가 2km미만인 경우도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황사는 다량의 중금속 성분까지 들어있어 인체에 극히 해로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활동 및 숲 복구 노력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매년 서울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사막화로 변하여 황사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0년 이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사막화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파괴된 숲을 복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 많은 황사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황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황사에보체제”를 정비를 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받은만큼 철저히 돌려줍니다.